

NYPI

청소년정책

리포트

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

❖ Vol.36 _ 2012. 12 | 맹영임 선임연구위원



NYPI YOUTH REPORT

VOL.36 _ 2012. 12 www.nypi.re.kr

발행일 2012. 12. 3 **발행인** 이재연 **발행처**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/10층 **전화** 2188-8860 **팩스** 2188-8869

제 작 계문사

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

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
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

❖ Vol.36 _ 2012. 12 | 맹영임 선임연구위원

CONTENTS ❖

- I.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 _ 03
- II.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청소년 주말활동 실태 _ 04
- III.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_ 10

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¹⁾

■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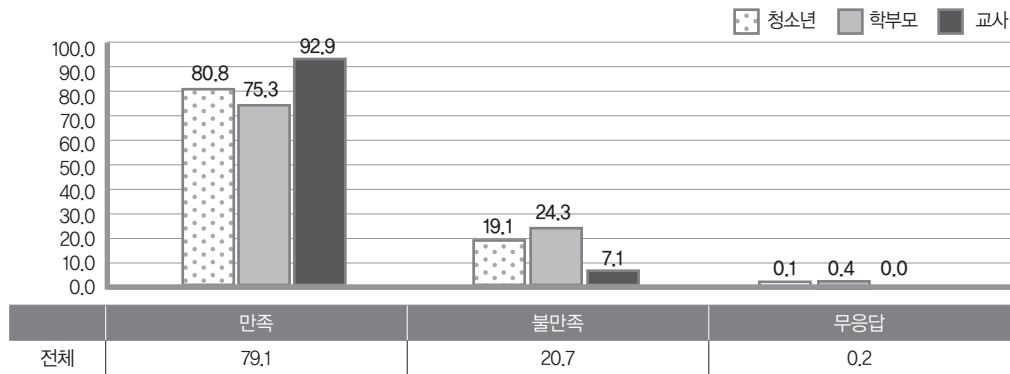
- 2011년도까지 월2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주5일수업제는 2012년도부터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전면 자율 도입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환경은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 확대되어 다양하고 체험적인 환경 속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음.
- 주5일수업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,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단체나 기관(시설)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.
- 결국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은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원과 맞물려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정책 인프라가 청소년들의 삶의 거점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.
-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청소년에게 주어진 주2일 연간 175일 휴일의 학교 밖 활동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,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1)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과제인 "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"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.

I.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

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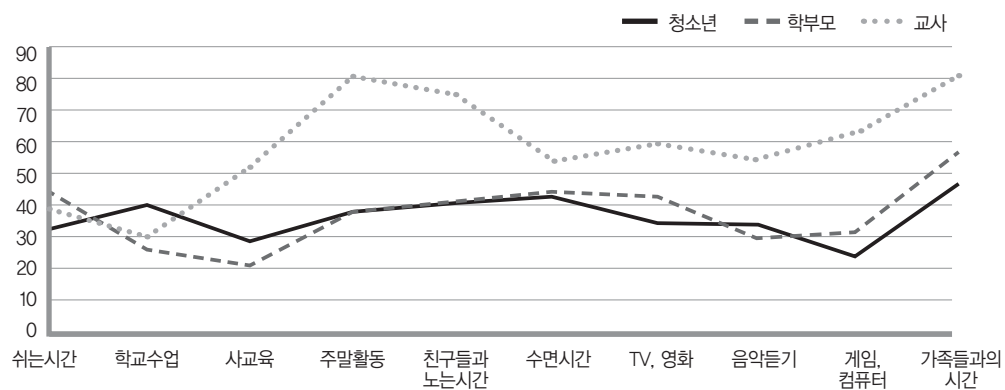
-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, 교사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【그림 1】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

■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생활시간변화에 대한 인식

- 늘어난 ‘학교수업시간’과 ‘학교 밖 공부시간’



【그림 2】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전후 청소년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

- ▶ 청소년들은 학부모나 교사에 비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전과 이후의 생활시간 비교에 대해 ‘쉬는 시간’은 줄어들고 ‘학교수업시간’과 ‘학교밖 공부시간(사교육)’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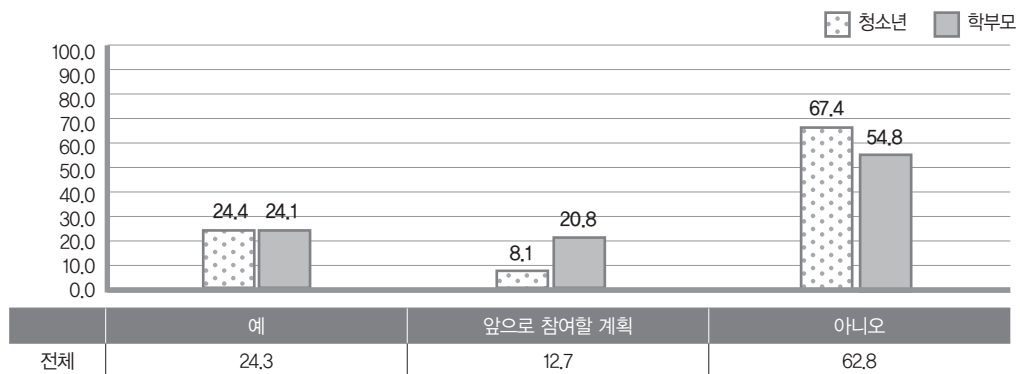
○ 부족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시설

- ▶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(54.1%)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교사나 학부모는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(교사:78.8% 학부모:76.3%).

II.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 주말활동 실태

■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 참여 실태

- 1/3 정도(32.5%)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(24.4%) 또는 참여계획(8.1%)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▶ 학부모는 과반수 정도(44.9%)가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거나(24.1%) 또는 참여시킬 계획(20.8%)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【그림 3】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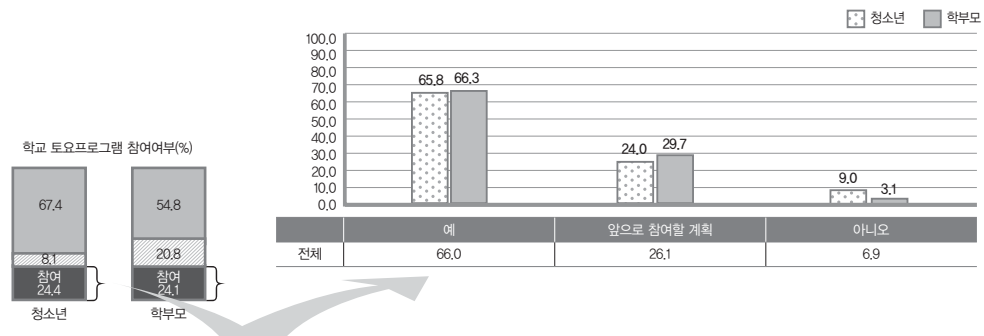
○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 이유 학교급에 따라 상이

- ▶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‘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’(58.1%), 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’(41.4%), ‘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’(25.5%), ‘부모님이 권유하셔서’(12.7%) 등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 - ※ ‘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’(69.0%), 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’(51.8%)는 중학교, ‘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’는 고등학교(49.3%)에서 높게 나타남(중복응답).

○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은 스포츠관련활동

- ▶ 참여하고 있는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종류는 ‘스포츠관련활동’(50.9%), ‘동아리활동’(22.0%), ‘문화예술관련활동’(20.6%), ‘교과학습관련활동’(20.1%), ‘진로관련활동’(15.1%) 등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 - ※ ‘교과학습관련활동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, 서울지역에서,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 - ※ ‘스포츠관련활동’은 남학생,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할수록, ‘문화예술관련활동’은 여학생, 학교급이 낮을수록,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- 참여하고 있는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(65.8%)과 학부모(66.3%)의 2/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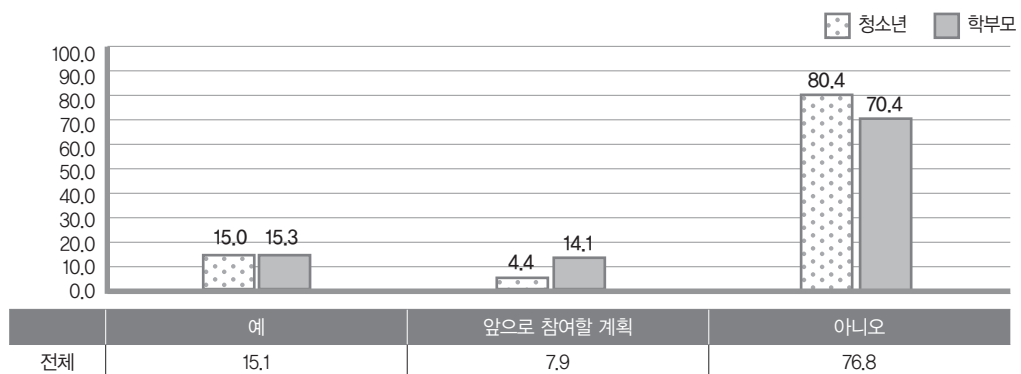


【그림 4】 학교 운영 참여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

-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청소년(62.4%)과 학부모(46.3%) 모두 ‘그냥 충분히 쉬고(쉬게 하고) 싶어서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‘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’는 22.7%인 것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
■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 실태

- 1/5정도(19.4%)의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(15.0%) 또는 참여계획(4.4%)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【그림 5】 학교 밖 다른 기관(시설)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 여부

- ▶ 학부모는 1/3정도(29.4%)가 자녀를 참여(15.3%) 또는 참여시킬 계획(14.1%)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말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을 보여줌.

○ 학교 밖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 이유도 학교급에 따라 상이

- ▶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‘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’(46.9%), ‘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’(37.7%), ‘부모님이 권유하셔서’(26.1%), ‘전문지도자가 있어서’(20.0%), 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’(18.8%) 등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※ ‘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’는 학교급이 낮을수록, ‘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’는 고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남.

○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은 ‘스포츠관련활동’과 ‘교과학습관련활동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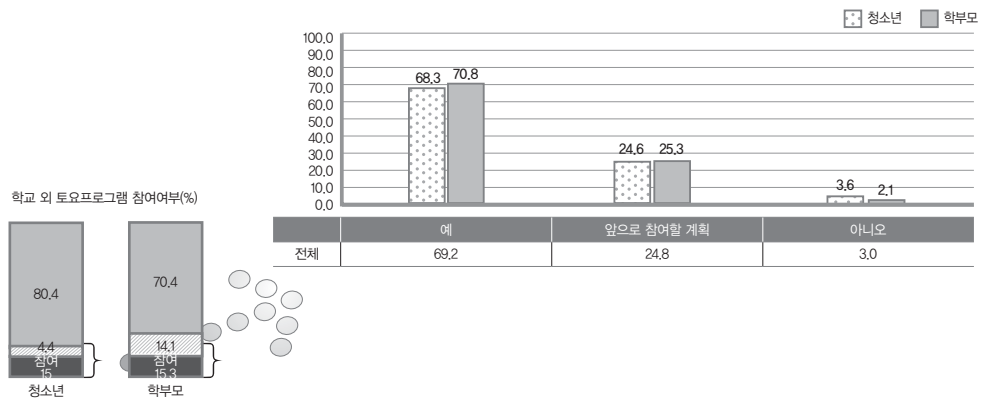
- ▶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종류는 ‘스포츠관련활동’(42.1%), ‘교과학습관련활동’(36.1%), ‘문화예술관련활동’(22.4%), ‘동아리활동’(16.0%), ‘봉사활동’(15.8%) 순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※ ‘교과학습관련활동’, ‘봉사활동’은 여학생과 학교급이 높을수록, ‘스포츠관련활동’은 남학생과 학교급이 낮을수록, ‘문화예술관련활동’은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기관은 ‘학원 등 사교육기관’

- ▶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기관은 ‘학원등 사교육기관’(40.3%), ‘문화센터(회관)·체육회관’(24.4%), ‘청소년수련시설’(19.6%), ‘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’(13.0%) 순으로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※ ‘학원 등 사교육기관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, 서울지역에서, ‘문화센터(회관)·체육회관’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○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에 대해 2/3 이상의 청소년(68.3%)과 학부모(70.8%)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▶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(청소년(65.8%), 학부모(66.3%)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【그림 6】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

○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역시 청소년(65.7%)과 학부모(48.6%) 모두 ‘그냥 충분히 쉬고(쉬게 하고) 싶어서’인 것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
▶ 고등학생은 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’(30.3%), 중학생은 ‘그냥 충분히 쉬고 싶어서’, 초등학생은 ‘거리가 멀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서’(9.2%)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■ 주말 여가시간 활용실태 및 선호도

○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1시간 42분, 토요일 5시간 5분, 일요일 5시간 23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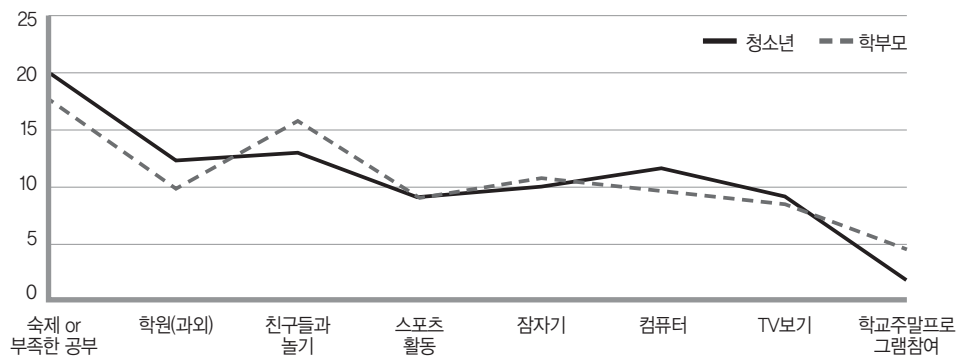
▶ 평일에는 중학교(1시간 56분), 초등학교(1시간 52분), 고등학교(1시간 22분) 순으로, 토요일에는 중학교(5시간 33분), 초등학교(5시간 10분), 고등학교(4시간 33분) 순으로, 일요일

에는 중학교(5시간 53분), 초등학교(5시간 27분), 고등학교(4시간 52분) 순으로 나타남.

○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‘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’

▶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‘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’(19.0%), ‘친구들과 놀기’(13.0%), ‘학원(과외)수업받기’(12.4%), ‘컴퓨터(인터넷 · 게임)하기’(11.5%), ‘잠자기’(10.0%) 순인 것으로 나타남.

※ ‘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’는 여학생과 학교급이 높을수록, ‘학원(과외)수업받기’와 ‘잠자기’는 학교급이 높을수록, ‘컴퓨터(인터넷 · 게임)하기’는 남학생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, ‘TV보기’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※ 학부모 : 자녀가 가장 많이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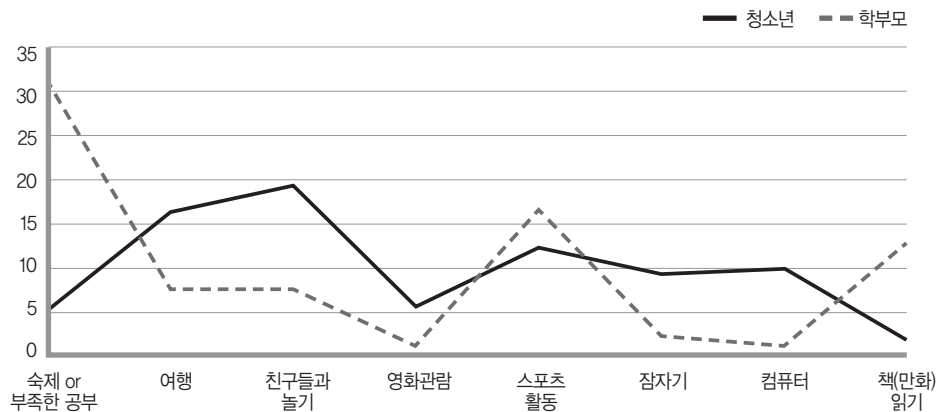
【그림 7】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

○ 놀고 싶은 청소년, 공부하기 바라는 학부모

▶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(하길 바라는) 활동으로 청소년은 ‘친구들과 놀기’(19.8%)를, 학부모들은 ‘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’(32.0%)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청소년은 ‘친구들과 놀기’(19.8%), ‘여행’(16.6%), ‘스포츠활동’(12.3%), ‘컴퓨터(인터넷 · 게임)하기’(9.9%), ‘잠자기’(9.2%) 순으로 나타남.

※ 학부모는 ‘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’(32.0%), ‘스포츠활동’(16.8%), ‘책 · 만화읽기’(12.9%), ‘여행’(7.4%), ‘친구들과 놀기’(7.2%), ‘청소년수련시설 주말프로그램 참여’(3.6%) 순으로 나타남.



※ 학부모 : 자녀가 가장 많이 하길 원하는 활동

【그림 8】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

Ⅲ.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

■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의 기본 전제와 방향

○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 필요

- ▶ 주5일수업제는 주7일 중 주말 2일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,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시간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주5일수업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.

※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관련 교사, 학부모,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, 교사와 청소년은 주2일의 휴일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.

○ 청소년활동정책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: 4I's

- ▶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소년활동정책은 주로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 여건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

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주요 정책방향 별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.

※ **4I's: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**을 ① 언제,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(information) ②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(infrastructure) ③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며(incentive) ④ 부모, 학교,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(interconnection)으로 설정, 청소년활동정책재구조화.

■ 언제, 어디서나 청소년활동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○ 청소년활동정보 통합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

- ▶ 기존의 청소년체험활동 정보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,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인 학교, 청소년, 학부모들은 청소년체험활동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※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(www.all4youth.net),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인성교육넷(www.crezone.net)을 통해 정보 제공

※ 설문조사결과 학교 밖 주말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로 학부모의 37.2%, 학생의 21.3%가 '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'로 응답

- ▶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주말활동 정보제공사이트 신설·운영 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간 주말활동정보 DB 공유(연동) 추진

※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체험활동자원지도(YRM)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넷(CRM)이 현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 DB 연동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·보완하고 활동기록의 에듀팟 연계를 통해 활용도 제고

- ▶ 정보 접근기회를 높이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동시에 가칭 'Any click sac(검색see-신청apply-확인certify)'을 통해 대국민 홍보병행으로 활용도 제고

※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원봉사사이트(www.dovol.net)에서는 검색-신청-확인서 발급 등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 짐.

- ▶ 변화하는 통신 및 정보제공 환경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용 청소년활동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
 - ※ 스마트폰의 위치확인시스템(GPS)기능 활용한 지역사회활동자원(기관, 시설) 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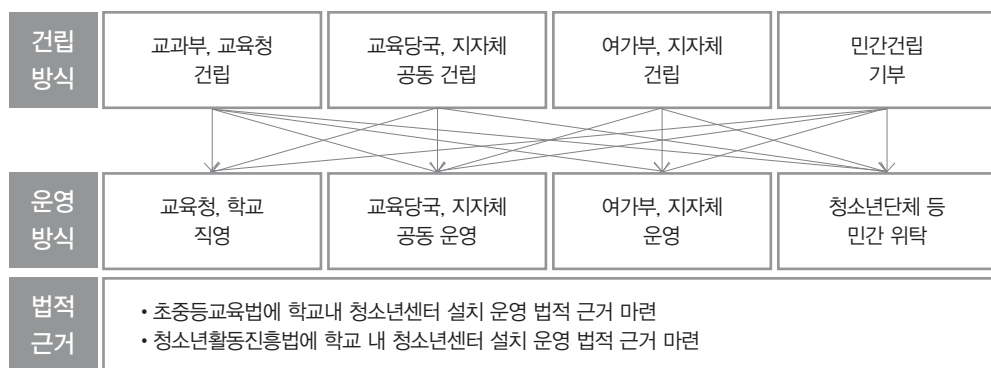
○ 중앙과 지방 청소년활동지원 중추기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

- ▶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.
 - ※ 청소년활동지원 중추기관(중앙 단위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단위의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)의 기능을 보완·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 확대와 효율성 제고

■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○ 학교 내 ‘청소년센터’ 건립·운영: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

- ▶ 학교와 지역사회관련기관(시설)과의 연계를 위한 매개로서 학교 내 ‘청소년활동전담센터’ 건립·운영을 모색할 필요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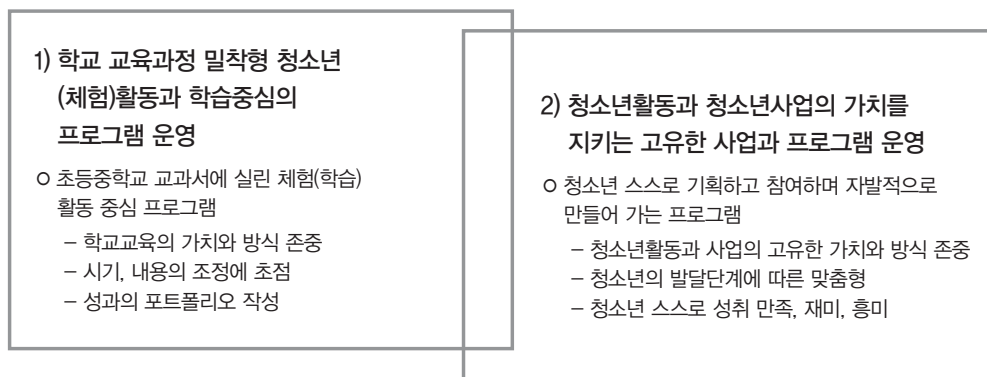


【그림 9】 학교 내 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방식

- ※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주말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담당교사의 근무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,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이를 위한 학교 내 전문인력의 부재, 접근성 부족, 이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의 원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전문화 및 재정립

- ▶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재정립하는 일임.
 - ※ 현재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과중할 정도로 많이 수행하고 있음.
 - ※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사업의 고유한 가치와 규칙을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함.
- ▶ 지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2가지 커다란 축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.



【그림 10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전문화의 2축

○ 찾아가는 청소년지도사 파견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

- ▶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함께 지역의 동네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.
 - ※ 현재 사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과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모집형태에 따라 몇 가정에서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의 호응을 얻고 있음.
 - ※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‘찾아가는 청소년성장지원캠프’ 등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.

○ 지역사회 민간참여를 위한 ‘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’ 도입 · 운영

- ▶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수적임.
- ▶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제공자원 확대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중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 기관을 인증하여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‘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’ 도입 · 운영
 - ※ 주말활동지원기관의 인증은 시 · 도교육감(교육청) 또는 지역의 교육장(교육지원청) 명의로 추진하는 안과 시 · 도지사(시 · 도청)가 인증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.

■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안전 확보

○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

- ▶ 청소년활동기록의 체계적인 누적, 관리, 제공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핵심이 될 수 있음.
- ▶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활동기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‘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’ 구축 필요함.
 - ※ 여성가족부는 2011년 1단계로 사용자통합DB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일원화된 활동이력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정보의 통합적 제공 및 활동기록을 누적관리 할 수 있을 것임.

○ 학교 밖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공제회 확대 운영

- ▶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. 학교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활동까지 보장 할 수 있는 공제회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.
 - ※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2012년 3월 법령개정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및 정규교육

과정 이외의 일부활동(창의적체험활동 일부 및 방과후 학교, 기숙사 생활)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.

- 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4조 조항의 개정을 통한 공제 범위 확대 추진
- ※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대상의 '청소년활동안전공제'와 같이 학교 밖 활동을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 하여 인증받은 주말활동지원기관까지 확대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

■ 부모, 학교,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기반 조성

○ 교과와 연계한 청소년활동 구성 · 운영

▶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필요

- ※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관련활동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고, 학교급간 선호활동영역이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초 · 중 · 고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학교급별 차별화된 청소년활동을 구성 ·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,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주말활동 지원 강화

- ▶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주말활동 기회 확대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주말에 홀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- ※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은 주말여가시간에 대한 주말활동 기회제공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돌봄기능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과후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주말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학교급에 따른 주말활동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.
- ▶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학업중단 및 홈스쿨링 청소년에 대한 주말활동 지원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함.

■ 추진체계정비

○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

- ▶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상호 관계가 모호하거나 중첩되고 있음.
- ▶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및 역할 재정립을 비롯하여 기능 강화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.

○ 주말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: 관련법 개정

- ▶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.
 - ※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주말활동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.

-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
- 청소년수련시설 이외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배치기관 확대
- 청소년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 도입
- 학교 밖 안전을 위한 공제회 설립

- ▶ 초·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주말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함.
 - ※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과 청소년 주말활동지원기관인증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두어야 함.
- ▶ 지역중심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말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‘청소년활동활성화지원조례’ 제정도 필요함.
 - ※ 200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‘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’ 등이 좋은 사례임.

2012 기본연구과제

- 아동·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 I
- 다문화가족 아동·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
-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종단연구 III
-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III
-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
-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
-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I
- 「창의적 체험활동」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I
- 후기청소년세대 생활·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
-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
-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정책연구
- 청소년 도덕성 발달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
-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
-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: 한·중·일·미·핀·사
- 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
- 아동·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
- 한국 아동·청소년 패널조사 III

